

화려하고 다양한 어린이책 축제 한마당

제31회 伊블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참관기

김두환

한국도서신문 저작권담당국 차장

올해로 서른 한번째를 맞은 블로냐 국제 아동도서전이 지난 4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동안 이태리 블로냐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 도서전에서는 전체 61개국으로부터 모여든 1400여개 출판사들이 화려하고 다양한 도서와 완구들로 어린이들의 천국을 만들었다. 5월말에 미국 LA에서 열릴 예정인 ABA 도서전, 10월에 있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과 함께 세계 3대 도서전에 속하는 블로냐 도서전은 아동도서만을 위한 아동전문 도서전으로 일러스트와 기획이 중요한 아동도서 부문의 세계적인 경향과 최신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이 행사에는 “멀티미디어와 아동도서—전 자출판 모범사례 및 단계적 전략과 접근방법”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도 함께 개최되었는데, 사전준비가 부족했고 잔치 분위기에 휩싸인 나머지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또 도서전에 출품된 작품들 중에서 아동도서 발전에 기여한 도서와 일러스트가 뛰어난 도서 등 각부문 도서에 대한 시상식도 아울러 치러졌으며, 수상작품은 도서전 기간중 따로이 마련된 공간에서 전시되기도 했다. 아동도서 그래픽상은 미국의 로스토프출판사가 제작한 「비의 아이들」이 차지했다.

아동도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대거 참가한 특별전시회에서는 ‘춤추는 색채들’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이타바시 예술박물관에서 제공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고 ‘일러스트레이터 카페’에서는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지망생들이 선배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모두 10개의 홀로 나뉘어 6천6백평의 넓은 전시공간에서 치러진 이번 도서전에서는 지금까지 피부로만 다가오던 국가간의 세력 불균형이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주최국인 이태리는 절반에 가까운 4개의 홀을 독차지하고 아동도서 뿐 아니라 완구와 심지어는 일반 단행본까지 할인판매하는 극성을 보였고, 미국과 영국이 각각 2개와 1개씩 홀을 차지해 나머지 50여개 국가들은 3개 홀에 나뉘어 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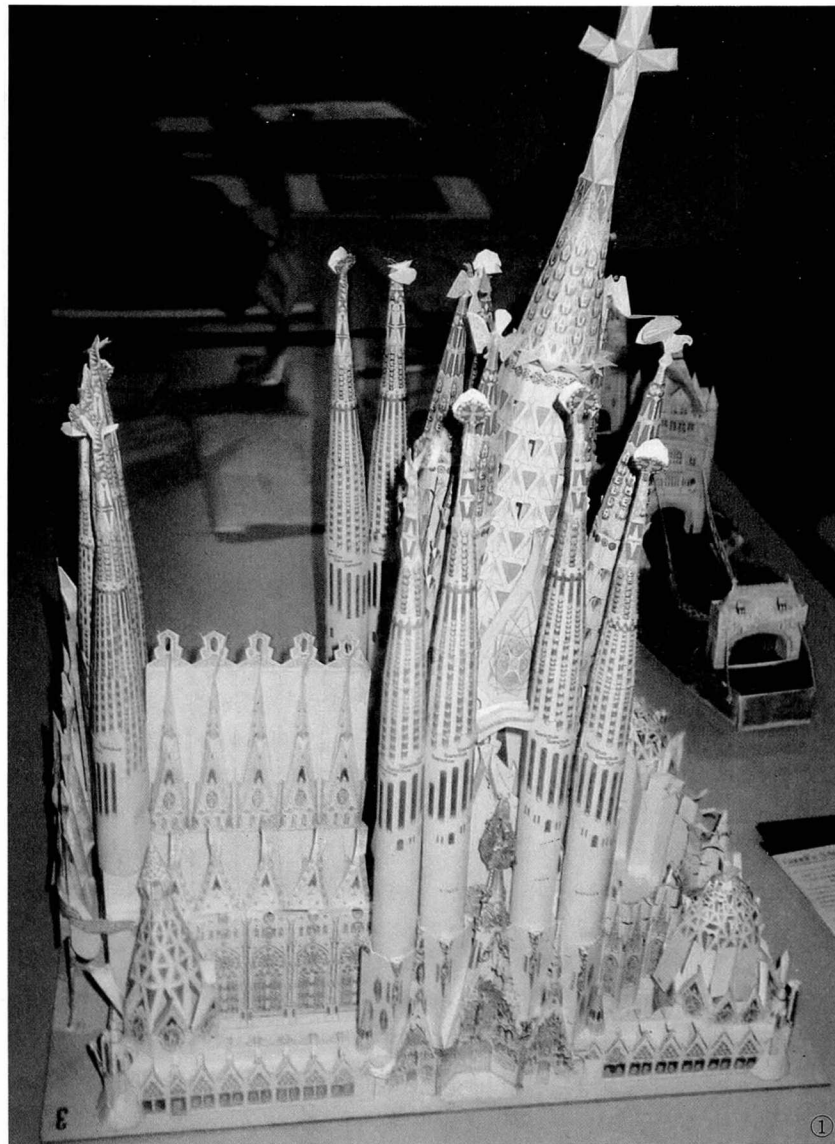
한편 이태리에서 참여한 출판사의 수는 237개인 반면 외국 출판사의 수는 1,187개였으며, 블로냐 시내 뿐 아니라 인근도시의 숙박

시설까지 도서전 참가자들로 붐빌 정도로 대단한 호황을 누렸다. 국내출판계에서도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 계몽사, 삼성당, 웅진 등이 각각 스탠드를 마련하고 최신 국내 아동도서를 선보였다. 특히 계몽사에서 내놓은 ‘예예’ 시리즈는 CD-ROM을 사용해 음성을 지원한 것으로 건반 모양으로 깔끔하게 디자인된 플레이어 위에 특수제작된 책을 올려놓으면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음악과 함께 음성으로 읽혀지도록 되어있을 뿐 아니라 건반으로는 피아노와 오르간까지 연주할 수 있어 각국의 출판담당자들과 에이전트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계몽사는 이를 외국어 교육에도 응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출판사들의 아동도서를 모아 함께 전시한 출협 김중건씨는 “출품된 도서중 가끔씩 외국의 저작물을 모방한 듯 기획이나 디자인이 유사한 작품이 있을 때 매우 착잡하고 난감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내출판사들이 보다 독창적이고 참신한 기획과 디자인의 책들을 출품해줄 것을 기대했다. 한편 계속해서 제기된 문제이지만 출협에서 작품을 모아 전시하는 데에 뒤따르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또다시 지적되었다. 두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현지 유학생 한명을 고용해 스탠드를 운영한 출협은 전시된 국내작품에 대해 외국출판사나 에이전트들이 관심을 표현하거나 샘플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출판사의 카탈로그를 주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어 직접 신청하게 할 뿐 구체적인 저작권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출협의 정종진 사무국장은 국내 에이전시가 각 출판사의 작품을 관리해 외국출판사와의 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한편 스탠드를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출판사, 마루벌, 한국 프리벨, 시사영어사 등 개인적으로 참가한 출판사들의 실무자들도 많았다. 실무진을 파견해 현지에서 직접 계약을 맺는가 하면 디자이너를 현지에 파견해 출판계의 첨단 디자인 정보를 수집하는 디자인 회사도 있었다.

이번 도서전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은 아동도서에 있어 멀티미디어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과 팝업북이 과학도서에 창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랜덤하우스가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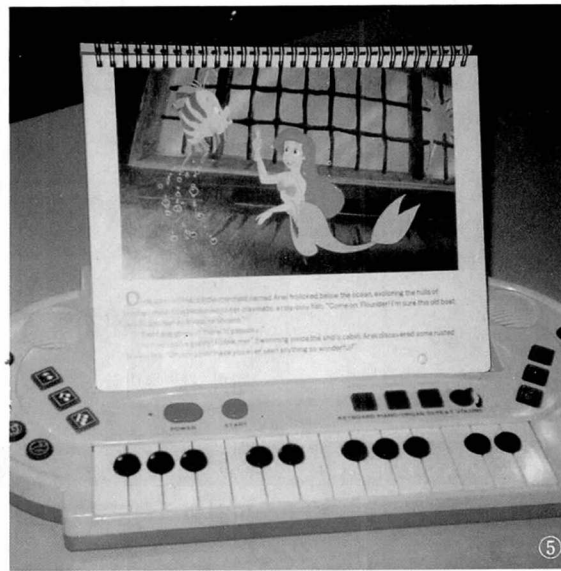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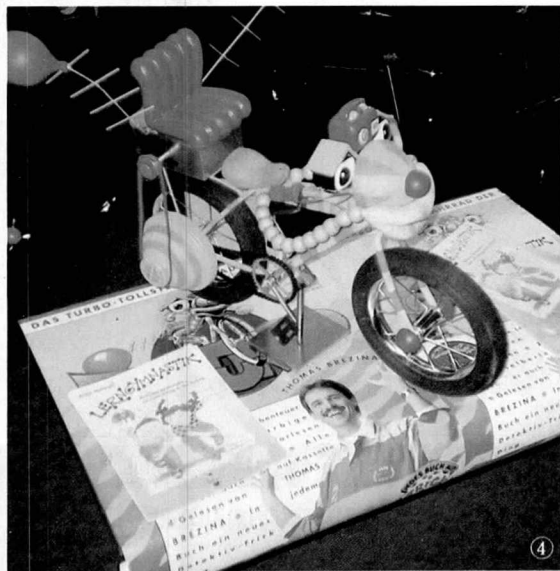


한 CD-ROM은 만화속의 주인공들을 등장시켜 다양한 교육적 내용을 담았으며 현재 영어 뿐 아니라 일어와 스페인어까지도 가능해 어린이들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이를 관심있게 지켜보던 한 국내출판사의 대표는 “국내시장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개선되어야 할 것이 많다”고 지적하면서도 멀티미디어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과 시장성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수려하고 독특한 사진으로 이미 온세계에 그 진가를 인정받아온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의 아동부서는 지구의 날씨와 기온의 변화를 한눈에 들어오도록 팝업북으로 입체화시킨 과학서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고 지금까지 축적된 많은 사진자료를 토대로 만든 어린이용 과학잡지는 대부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판권객

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았다. 갈수록 산뜻하고 입체화되는 스탠드의 모습은 이번 도서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태리의 한 출판사는 스탠드의 기둥을 책으로 쌓아 만듦으로써 도서전의 분위기가 절로 우려나게 했다. 이 스탠드의 디자인은 무조건 화려하게 장식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눈에 띄는 스탠드를 만들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아이디어만 참신하면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했다.

물론 독특한 디자인의 스탠드를 갖기 위해서는 참가출판사의 수가 적어도 10여개 정도는 확보되어야 하고 일반 스탠드가 아닌 돌출된 전시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디자인 및 현지 제작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처럼 홀 하나를 완전히 대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자국의 스탠드를 한곳에 모아놓고 단일한 이미지를 준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국내출판사와 에이전시의 스탠드를 출혈이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서둘러 이루어진 호텔예약이나 일정은 원활한 도서전 관람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참가자들은 대개 여행사에 호텔 및 항공편 예약을 맡기고 있는데, 그럴 경우 전시장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호텔에 투숙하는 예가 많고 그렇게 되면 매일 전시장까지 오랜 시간을 소비하며 왕복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일도 허다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험자들

의 조언을 얻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입장을 세워야 할 것이며, 여행사 역시 각 도서전 참관에 편리한 숙박시설 파악과 확보에 좀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① 아동도서의 팝업화 및 입체화 경향은 이번 도서전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로 꼽힌다. 사진은 중세의 고성을 나타내게 한 모습.

②③⑦ 출품된 책 못지 않게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 세계 각국 출판사들의 화려하고 입체적인 스탠드 디자인.

④⑤⑥ 참신한 아이디어와 멀티미디어적 접근방식이 인상적인 출판사들. ⑤번이 해외출판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계몽사의 「예예」.

